

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

9주. 여성, 문학으로 삶을 가꾸다

1차시. 이옥봉-판결을 바꾸다

학습목표

1. 이옥봉의 생애와 사건이 된 시를 이해한다.
2. 이옥봉의 시세계 성향을 이해한다.

이옥봉은 누구인가?

이옥봉(李玉峰).명종 때의 시인

이봉의 서녀

- 조원의 첩이 되기를 원하여 이준민에게 허락 받음.
- 시를 짓지 않는다는 맹세하고 혼인
- 남편 부임지를 따라감-삼척, 영월 등을 거침
- 시 지어 판결을 바꾼 일 때문에 친절으로 쫓겨남.
- 시집 옥봉집. 32편이 전한다.
- 시 쓴 종이로 몸을 감싼 채 발견됨.

.



시 때문에...

판결을 뒤집어 남 구하고 자신을 쫓겨나다

세숫대야로 거울을 삼고

참빛에 바를 물로 기름 삼아 쓰옵니다

첩의 신세가 직녀 아닐진대

낭군께서 어이 견우가 되리오.

(洗面盆爲鏡, 梳頭水作油, 妾身非織女, 郎豈是牽牛)

이옥봉 시

<영월 길 위에서>

오월 긴 산을 삼 일만에 넘어서니

노릉의 구름에 애처로운 노래 끊어진다

내 몸 또한 왕가의 자손이라

이 곳 두견새 우는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

(五月長干三日越 哀歌唱斷魯陵雲此身亦是王孫女 此地鶉聲不忍聞)

<寧越道中>



<가을날에>

비취 발 성글어 바람 막지 못하고

선선한 기운 푸른 김치마에 스며든다

방울지는 흰 이슬과 반짝이는 달빛

가을 심사 풀어내는 초여름 풀벌레 소리

(翡翠簾疏不蔽風 新凉初透碧紗襦 涓涓玉露團團月 說盡秋情初夏蟲)

<秋思>



<https://blog.naver.com/cablenews1/220865217908>

이옥봉 시

<몽혼>

안부를 묻네요, 당신은 잘 계신지요
달 비친 비단 창가 슬픔만 깊어가고
꿈 속 नी이 자취 남기게 한다면
아마 문 앞 돌길 반쯤 모래 되었을 겁니다.

(近來安否問如何 月到紗窓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半成沙)

夢魂

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KkzHdfueJc>

이옥봉 시

평생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
술로도, 약으로도 못 고치네
이불 속 눈물 얼음 아래 물 같아
밤낮으로 흘러도 사람들 모르네

(平生離恨成身病 酒不能療藥不治 衾裏泣如氷下水 日夜長流人不知)
<閨情>

깊은 정 쉽사리 전해드리려
말로 다하려니 더욱 부끄럽도다
임이 만일 내 소식 묻거든
화장도 지운 채 누각에 혼자 있다 해다오.

(深情容易寄 欲說更含羞 若問香閨信 殘粧獨依樓)

<離愁>

Quiz로 정리하기

1

오월 긴 산을 삼 일만에 넘어서니
노릉의 구름에 애처로운 노래 끊어진다
내 몸 또한 왕가의 자손이라
이 곳 두견새 우는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

2

안부를 묻네요, 당신은 잘 계신지요
달 비친 비단 창가 슬픔만 깊어가고
꿈 속 நீ이 자취 남기게 한다면
아마 문 앞 돌길 반쯤 모래 되었을 겁니다

3

평생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
술로도, 약으로도 못 고치네
이불 속 눈물 얼음 아래 물 같아
밤낮 흘러도 남들은 모르는구나

1. 시적 화자의 처지가 같은 시들은 어떤 것인가?

2. 시 1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?

- ① 세조 왕위 찬탈 ② 인조반정
③ 영창대군 죽음 ④ 연산군 축출

3. 이 시들의 작가는 누구인가?

- ① 조원 ② 허난설헌 ③ 이옥봉

4. 시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- ① 시 2는 현실에서 화자가 임에게 왕래하느라 돌이 모래가 되었다.
② 시 3은 임과 헤어진 상황을 얼음과 같은 찬 느낌으로 표현했다.
③ 시 1의 공간은 영월이다.